

치 사

전통적인 한국미술을 계승하고 현재의 시류를 담아 불교미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제26회를 맞이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1970년 불교미술전람회를 시작으로 41년이란 세월과 함께 불교미술대전을 여기까지 훌륭하게 이끌어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초조대장경을 판각한지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천년을 이어주게 해준 목판인쇄술로서 가치가 높으며 이는 불교미술의 역사와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학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팔만대장경은 신라 불교 문화의 산물인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과 함께 세계가 인정한 불교미술의 정수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온 후 불교사상은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 왔으며 그로 인해 건축, 불상, 불화 등 한국불교문화가 순결하고 고귀한 정신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교미술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한반도 전체의 문화와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미술은 1700년 한국불교역사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킨 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불교미술은 옛것이라고 생각되어 새로운 문화에 밀려 그 가치가 퇴색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작가들의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종단에서도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오늘 대상의 영예를 안은 양선희 작가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들께 큰 축하를 드리며, 불교가 가진 사상과 문화를 현대인에게 전달하고자 고귀한 마음으로 열력을 실천하시는 모든 작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을 다하신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5년 11월 29일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